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월간지



VOLUME 297 | MARCH 2022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3월호 / 통권 297호

발행일 2022년 3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97 | MARCH 2022

Editor's Note	4
함께 읽는 성경	6 고통의 신비
전례와 생활	10 미사 바로 알기 (5) - 전례 독서 14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News & Views	17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교회의 가르침	18 지구의 부르짖음,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22 한국천주교회의 첫 순교자 그룹인 '하느님의 종' 김범우 토마스
신앙과 삶	26 산다는 건
듣다 읽다 보다	30 고전 음악을 듣다 3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2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48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52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THE COVER

키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출처 :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소장



성모영보(3월25일)
출처 : 서울대학교 사제평생교육원 소장

아직도 겨울의 꼬리를 길게 늘어트린 2월의 매서운 추위로 어느새 끝을 보입니다. 아직은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훈훈한 봄의 기운을 느끼는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3월에는 두 편의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편집장의 글을 갈음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임영조 시인의 ‘삼월(三月)’이라는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삼월의 설렘과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서 계속 읽게 됩니다.

밖에는 지금/ 누가 오고 있느냐/ 흠먼지 자욱한 꽃샘바람/ 먼 산이 꿈틀거린다.// 나른한 햇볕 아래/ 선잠 깬 나무들이 기지개 켜듯/ 하늘을 힘껏 밀어 올리자/ 조르르 구르는 푸른 물소리/ 문득 귀가 맑게 트인다.// 누가 또 내 말 하는지/ 떠도는 소문처럼 바람이 불고/ 턱없이 가슴 뛰는 기대로/ 입술이 트듯 꽃망울이 부른다.// 오늘은 무슨 기별 없을까?/ 온종일 궁금한 삼월/ 그 미완의 화폭 위에/ 그리운 이름들을 써놓고/ 찬연한 부활을 기다려본다.

두 번째 시는 제가 매년 사순 시기가 되면, 사순 시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읽어보는 시입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사순절 기도시 “**또다시 당신 앞에**”입니다. 읽어보시고 사순 시기를 맞이하는 마음을 함께했으면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 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의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뒤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

소서 주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저에게만 관대했고 이웃에게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 없이 행동했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사십일만이라도/ 거울 속의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사십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때가 되면 황홀한 문을 여는/ 꽃 한 송이의 준비된 침묵을/ 빛의 길로 가기 위한/ 어둠의 터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재의 수요일 아침/ 사제가 엎어 준 이마 위의 재처럼// 차디찬 일상의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나/ 참사랑에 눈 뜨는 법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며 진리를 새롭히게 하소서/ 맑은 성수를 짙어 십자를 굶는 제 가슴에/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 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이 3월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재를 이마에 바르며 우리의 죄(罪)와 악(惡)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부활 대축일까지의 40일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이 40일의 신앙 여정은 분명 주님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경험해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는 일종의 순례 시간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중심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인 동시에 더 큰 세계를 향해 열린 통로입니다. 그 통로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너우식 신학과대학원

서울대학교 직장사목팀 본부장

고통의 신비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1. 고통이란 무엇인가?

구약 욥기 5장-8장을
읽어보세요

몸과 정신,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고통에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걱정이나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적인 것과 실망감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궁극 문제와 관련하여 느끼는 영적(靈的)인 고통도 있습니다. 인류는 고통의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답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의인 욥은 재산과 건강, 아들과 딸들을 순식간에 다 잃고 죽음의 문턱에 섭니다. 욥의 고통은 바로 인간 모두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께 충실한 욥을 모든 시련에서 구원하시는 행위로서 각 인간의 운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은 세상에서 악에 직면할 때 “하느님은 없다”(시편 10,4)고 주장합니다. 욥의 아내는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욥 2,9) 사람들은 인간의 노화와 질병과 죽음의 현상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고통을 체험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간다.

시편 66장을 읽어보세요

예언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시편 73,17). 그들은 쇠붙이를 제련하는 것으로(시편 66,10), 아버지가 자식을 매로 키우듯이 고통의 교육적 가치(잠언 3,11-12)를 발견하고, 오히려 죄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을 하느님 호의의 결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2마카 6,12-17).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입니다(욥 42,1-6). 고통은 신앙을 통해 하느님의 계획과 관계를 가지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느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 어떠한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레미야는 내적인 방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회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예레 15,10-19). 인간은 역사를 겪으면서, 세상에는 저주의 세력 및 사탄의 권세와 같이 인간에게 대립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는 불행의 자초하고, 사람들은 갖가지 고통의 원인에서 잘못된 이유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창세 12,17-18). 이 세상을 짓누르는 고통의 원천으로 첫 번째 죄를 전제합니다(창세 3,14-19). 그러나 의인의 고통과 사망, 불신자의 장수라는 인생의 희비가 걸림돌이 됩니다(예레 12,1-2). 마치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3. 예수님의 고통

마르 14-15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종으로 모든 인간적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치유와 죽은 자의 소생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표징들이며,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줍니다(마태 11,4 참조; 루카 4,18-19).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이 행한 기적 안에서 악의 패배를 보십니다(루카 10,18). 우리의 병을 모두 짊어지신(이사 53,4) 그분은 치유를 통해 야훼의 종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병자의 치유는 초대교회

의 확신을 증명합니다(사도 3,1-10).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꺾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히브 3,14). 예수님은 먼저 고통을 제거하지 않고 위로하시며(마태5,5), 눈물을 없애 주시지 않고 다만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통은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도록 준비시키고 ‘하느님의 업적’(요한9,3)이며 하느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요한 11,4). 예수님의 고통은 치명적인 슬픔으로, 공포와 번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죽음과의 투쟁입니다(마르 14,33-34). 예수님의 수난에는 인간의 배신을 비롯하여 하느님께서 버리셨다는 괴로움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간적 고뇌가 집약되어 있습니다(마태 27,46).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사도 3,18)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마태 20,28) 이 세상에 파견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순종과 사랑으로(요한 14,31) 이 계획에 복종하셨습니다.

4.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의 신비
:
히브 12-13장을 읽어보세요

부활 승리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죽음도 고통도 없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가르침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땅히 스승이 걸으셨던 똑같은 길을 따라야 한다(요한 15,20).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갈라 2,20)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도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통입니다(2코린 1,5).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을 배우셔야 했던 그리스도처럼(히브 5,8),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을 인내로 견디어 내야하며 우리 신앙의 장본인

이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 내신 그분에게 향하게 해야 합니다(히브 12,1-2).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연대 관계를 맺으셨으니 당신 편의 사람에게 같은 규범을 남겨 주셨습니다(1코린 12,26).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로마 8,17). 하느님의 성령, 곧 영광의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쁨을 호소하는 베드로의 말씀도 신앙의 신비, 고통의 신비를 잘 드러냅니다(1베드 4,13-14). ☪

미사 바로 알기 (5) - 전례 독서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말씀의 전례는 시작 예식과 더불어 ‘예비 미사’, 혹은 ‘예비신자 미사’라는 이름으로 미사 전례 안에 있었습니다. 성찬의 전례 이전까지는 예비자들과 함께 전례에 참여하고, 성찬의 전례부터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만 전례에 참여하던 관습에서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 작업 이후에는 그 내용과 특징을 살려 ‘말씀의 전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례의 구성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 독서, 복음, 강론과 공동체의 응답인 화답송, 복음환호송, 신앙고백, 보편지향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독서집의 발전

초기 그리스도교 전례에서는 파피루스 낱장들을 두루마리 형태로 말거나 한쪽을 엮어 제본한 형태의 구약성경을 전례서로 사용했습니다. 매 모임에서 독서를 연이어 읽는 연속 독서(lectio continua)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성경책에 독서의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표시를 적어 넣었고, 그것을 읽는 날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할 목록을 작성하여 전례력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습니다. 8세기 이후에는 목록에 성경이 필사되어 더해진 「독서집」, 「서간집」, 「복음집」 등이 나왔고, 11세기를 지나면서는 기도, 독서, 복음, 노래를 모두 담은 「총 미사 경본」(Missale plerarium)이 등장합니다.

미사 독서집의 발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하느님 말씀의 풍성한 식탁을 신자들에게 마련하여 주도록 성경의 보고를 활짝 열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백성에게 봉독되어야 한다는 ‘전례헌장’(51항 참조)의 규범에 따라 말씀의 전례 개혁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사 독서 개정 위원회는 약 6년여간의 작업 끝에 「미사 독서 목록」을 1969년 5월 25일 발간했고, 전례력으로 1970년 새해인 대림 제1주일(1969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1971년 9월 30일에는 「독서 지침」과 「미사 독서」가 수록된 「미사 독서 목록」을 출간했습니다. 1981년에는 새로 발행된 「새 대중 라틴말 성경」(Nova Vulgata Bibliorum Sacrorum)을 반영하고,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과 새로운 예식서에 추가된 내용을 보완·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 작업에서는 구성 요소, 구조, 내용 등 여러 면에서 공의회 가르침을 반영하여 말씀의 전례를 미사의 본질적인 요소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말씀 전례의 구조

말씀의 전례는 크게 ‘주일’의 형태와 ‘평일’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주일: 제1독서-화답송-제2독서-복음환호송-복음-강론-신앙고백-보편지향기도

2) 평일: 제1독서-화답송-복음환호송-복음-강론

전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뼈대는 이 구조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이 형태의 특징은 하느님과 전례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대화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새기며 화답하는 쌍방향의 형식입니다. 만약 전례에 참여하는 이가 구경꾼처럼 앉아만 있거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기도만을 한다면 그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독백이 아닌 소통을 통해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례 구조는 이 말씀의 전례처럼 대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 독서집의 구성

오늘날 전례에서 읽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발췌하여 사용합니다. 1570년 미사 경본에 따른 독서 체계와는 다르게, 현행 독서는 주일 전례의 경우 3년 주기(가해, 나해, 다해)로 순환하고, 평일 전례의 경우 2년 주기(짝수해, 홀수해)로 이루어집니다. 주일 미사의 경우 복음 전 독서가 2개로 늘었고, 평일에도 구약성경이 새롭게 배치되었습니다. 독서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신자들이 전례 안에서 성경을 접할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전례 독서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넘어가는 흐름을 따릅니다. 복음 선포는 그 흐름에서 정점을 차지하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구원 역사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기에 따른 독서

독서의 내용은 교회의 다양한 전례 시기와 축제를 반영합니다. 전례 주년의 시기별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명을 독서 안에서 접하게 됩니다. 대림 시기 4주 동안 구세주를 기다리는 인류의 갈망이 담긴 구약을 되돌아보고, 성탄 시기 동안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과 관련된 복음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단식하셨던 광야의 삶을 들으며 동참하고, 성주간에 기념하게 될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할 준비를 합니다. 부활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축하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대축일이 그 정점을 이룹니다. 연중시기라고 부르는 나머지 전례 시기에는 예수님의 공생활에 초점을 맞춘 말씀들을 듣습니다.

첫째 독서

우리가 미사에서 듣는 첫째 독서는 부활 시기에 신약의 사도행전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통상 구약성경에 담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일의 첫째 독서는 과거에는 복음과 연관성이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주일 복음과 연결되어 주제상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구약의 독서와 신약의 복음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말씀의 전례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평일 독서 역시 주제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특별한 성격을 가진 전례 시기에는 이러한 특징을 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과 새김

미사 중에 읽는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 될 수 없습니다. 성인의 저서나 교황·교부의 강론집, 공의회 문헌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봉독될 때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미사 경본 총지침 29항)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서와 연관되는 책이나 내용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면 강론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읽히는 순간에 회중은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는 것이 아닌, 독서대에서 독서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입니다.”하고 마치는 선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울림이 침묵 속에 잦아드는 동안, 우리는 침묵 중에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은총에 경탄하고 흠송을 드립니다. 독서 후의 묵상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던(루카 2,19)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 안에 말씀 새김의 작업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매 순간 전례 독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녀 세라피나

St. Seraphina (축일: 3월 12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서, 돌로는 얼굴을 가리고 돌로는 발을 가리고 돌로는 날아다녔다”(이사 6, 2).

여러분들께서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천사들 가운데 제일 으뜸인 천사는 누구일까요? 위에서 언급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천사들 가운데 제일 으뜸인 천사는 바로 **사람들(세라핌, seraphim)**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찬미와 찬송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천사들에게 허락된 끊임없는 사랑의 열정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무너져도, 넘어져도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희망입니다.

이 **세라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שרף** **사랍(사라프)**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이 뜻은 “to burn”, 곧 불태우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이 **사랍(사라프)**이라는 동사는 다양하게 발음되기에, 스랍이라고도 하고 사라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라틴어화하여 남성명사로 표기하면 **세라피누스 Seraphinus**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명사의 여성형이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세라피나 Seraphina**입니다. 모두 다 같은 히브리어 동사의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불멸의 정신으로,



하느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의 영을 내적으로 불태우는 사람들을 두고 **세라피노/세라피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불은 주로 하느님의 진노, 심판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만큼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감정을 표현할 상징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당신의 진노를 불태우시렵니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1장 10절에 보면 “이 도성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어가고, 그는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라고 하여, 하느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서 불태우고 불타는 이미지는 주로 부정적인 정서와 두려운 공포심에 의거한 발화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단 한 곳에서는 이 불태움이 아주 긍정적인 열정의 회복으로 묘사됩니다. 2티모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입니다. 그러니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협력자인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발화의 정서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랍(사라프) 동사의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다시 불태워 주시도록 성령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할 필요를 역설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

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2티모 1,14). 그러니 사람(사라 프)와 관련된 이름을 지닌 이에게는 자신 안에 머무르시는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2티모 1,7)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워야 하는 소명을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성녀 세라피나(Seraphina, 이태리어로는 세라피나 Serafina. 줄여서 피나 Fina)를 만나면 그런 소명을 상기할 필요를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 신앙이 가져다주는 끊임없는 열정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Toscana)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인 산 지미냐노(San Gimignano)의 어느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낮에는 가사를 돕고, 밤에는 기도에만 전념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얼굴이 망가져서, 보기에 추한 여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여느 소녀라면 자신의 미모를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생을 포기하였을 터인데, 세라피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열정으로 불타서 주님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송이 꽃처럼 남았습니다.

누구든지 세라피나라는 이름을 세례명으로 쓰시는 자매님들은 한결같은 한 송이 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꽃은 자신의 미모를 과시하기 위해 피기보다 누군가를 향한 열정 때문에, 생명력 때문에 피고 지는 것입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한 이가 아름다운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에 사랑을 더 청하여 언제나 불타는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 비로소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영이 부디 모든 형제자매님들 안에서, 성녀 세라피나의 다음 말이 울림으로 다가오길 기도합니다.

나의 상처보다 그리스도의 상처가 더 마음 아프다(성녀 세라피나).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 개인 후원: 김서원, 익명
- * 단체 후원: 한국CLC

오르프(Orff)와 함께하는 씬, 움직임

- 주제: 리듬, 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오르프슐베르크(Orff-Schulwerk) 프로그램
-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 일시: 3/15~6/14(매주 화요일)19:30~21:00
-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회(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 강사: 권현경 마리 요한티나 수녀(노틀담 수녀회)
- 회비: 모임 당 4회/총 4만원
-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24-3048(카톡ID: k_orff)

■ 프로그램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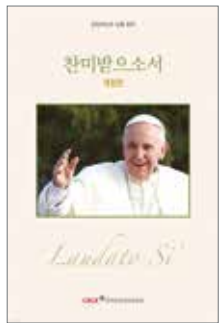
일자	수업 내용(총 4회)
1차 모임(3/15~4/5)	첫째 수업(1회) - 나의 이름과 함께(움직임, 리듬, 미술, 문학)
2차 모임(4/19~5/10)	둘째 수업(2회) - 리듬으로 대화하기(리듬, 앙상블, 문학) 셋째 수업(3회) - 소리를 느끼다(노래, 앙상블, 문학)
3차 모임(5/24~6/14)	넷째 수업(4회) - 나를 응원하기(노래, 움직임, 앙상블, 문학)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지구의 부르짖음,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찬미받으소서」 회칙 1장은 공동의 집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특히 생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에게 주목합니다. 쓰레기 문제나 물과 공기의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를 단순히 외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49항) 귀 기울여 보자는 것이지요. 이번 달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멸종

심각한 생태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종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마다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종의 소멸은 지구 역사상 항상 있어왔던 일이지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의 멸종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데 반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에 의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큼니다. 유엔의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생물의 멸종 속도는 자연적인 비율에 비해 최고 1000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멸종 속도는 가까운 미래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는 이러한 문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례가 없었던 멸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가 ‘여섯 번째 대멸종’을 앞두고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는 다섯 번째 대멸종이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러한 대규모 멸종 사건에 비견할 만하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우리 주위의 익숙한 동물들이 당하는 죽음과 달리, 한 생물종 전체의 멸종은 우리에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강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생물종의 소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생명체들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 생물종의 멸종이 다른 생명체 20종의 절멸로 직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생물의 다양성에서 식량과 직물, 섬유질, 약을 얻는 인간에게 동식물의 멸종은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경고가 과연 지나친 과장일까요? 멸종은 또한 하나님의 신비를 지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풍요”(86항)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둘 멸종의 심연으로 떨어질 때 그 종이 하나님을 반영하던 고유한 방식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를 애통해하시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생물종들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33항).

세계적 불평등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1등실보다 3등실 승객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았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은 오늘날의 생태 위기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든 환경 훼손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 주변에 사는 갈 곳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폭염으로 인해 더 힘든 여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는 빈곤층의 사람들이고, 물의 오염도 생수를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특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과 어획량의 감소는 영세 농부와 어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모순적인 것은 생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이 문제에 가장 적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10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퍼센트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은 기후변화와 관계있는 오랜 가뭄과 극심한 홍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 파괴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은 생태 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단기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들은 단순히 현재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 자원을 그 한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업화된 북반구의 시장을 충족시키려고 천연자원을 무리하게 수출한 결과 광산 지역이 오염되고, 수출 작물을 위한 과도한 경작으로 농토는 황폐해지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삼림이 파괴되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회칙은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들이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생태적 빛”(51항)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유한 국가들이 그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 뒤에는 부당한 몫을 감당해야 하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난민

기후 위기의 시대에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기후 난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난민은 급격하게 진행된 기후 변화로 생활 환경에 위협을 받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살던 곳을 떠나 국내나 국외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칙이 말하듯이 이들은 “국제 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포기한 삶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25항).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기록적인 홍수와 폭염, 가뭄, 폭풍,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 재난으로 매년 2천150만 명에 이르는 실항민과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브라질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2억1천만 명이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기후 난민의 숫자로 인해 난민들이 이주하는 지역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기후 난민에게 기후변화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재난이 아니라, 지금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인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은 “누이인 지구가 세상의 모든 버려진 이들과 더불어 부르짖으며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볼 것을 호소하게 합니다”(53항).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19항)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한국천주교회의 첫 순교자 그룹인 ‘하느님의 종’ 김범우 토마스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범우 토마스 초상 | 조영동 작 | 1984년 | 캔버스에 유채 | 80x115cm
출처: 굿뉴스갤러리

지난해 순교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유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는 죄로 사형을 받은 이 두 복자가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일까요?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시복과정에서 반드시 하느님의 종에 대한 순교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시복이 되었다면, 그의 ‘순교’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한 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멀리는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 가운데서 순교한 이들이 있고, 가깝게는 명례방 공동체의 집주인이었던 김범우 토마스가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하느님의 종으로 시복

심사 과정에 있는 김범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알려진대로 김범우 토마스(金範禹, 1751-1787)는 중인(中人)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무관을 지낸 집안이었다가 부친인 김의서(金義瑞)가 역관 시험에 합격하면서 역관 집안으로 이름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중인(中人)은 말 그대로 양반보다는 밑에 있고, 상인(常人)보다는 위에 있던 신분층을 말합니다. 오늘날 엘리트 그룹으로 보는 과학자, 의사, 통역관, 회계사 등의 기술직 일을 주로 담당하는 이들이 중인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되는 뿌리에 있어서 이승훈의 서학서 수입 외에도 중인 출신자들의 보이지 않은 역할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직해(聖經直解)라는 복음해설서를 한글로 번역하던 최창현, 주문모 신부를 지금의 가회동 인근에서 모시면서 한글을 가르쳐 주었던 최인길, 그리고 자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회 장소로 내어주었던 김범우 등이 모두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초빙하고, 모시는 비용 외에도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범우는 서울 남부의 명례방(明禮坊)에서 살면서 1773년에 역과에 합격하였습니다.

1784년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에서 세례식과 집회가 열렸을 때, 이벽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세례 받은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토마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즉시 윤지충, 최필공, 김종교, 홍익만 등에게 교리를 전하거나 교회 서적을 빌려주면서 많은 전교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문 실력으로 많은 서적을 필사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벽의 집에서 열렸던 모임이 점차 커지자, 김범우는 자신의 넓은 집을 집회장소로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채가 엮은 「벽위편」이라는 책에는 김범우의 집에서 열린 명례방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에 그 중요대목을 옮겨봅니다. “을사년(1785) 봄에 이승훈이 정약전, 약용 등과 함께 장례원(掌禮院, 장악원의 잘못) 앞의 중인 김범우 집에서 설법할 때, 이벽이라는 자가 푸른 두건을 머리에 얹어 어깨까지 드리우고 아랫목에 앉아 있었으며, ... 사대부와 중인으로 모이는 자가 수십 명이 되었다.

추조(秋曹= 형조를 가리킴)의 금리(禁吏)가 그 모임을 술 마시고 노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들어가 보니 모두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수건을 썼으며, 행동거지가 괴이하여 마침내 체포하고, 예수의 화상 및 서적들, 몇가지 물건들을 추조에 바쳤다. 추조판서 김화진(金華

鎭)은 그 양반 자제들이 그릇된 것에 빠진 것을 애석히 여겨 타일러서 내보내고, 다만 김범우만 가두었다.”

위의 사건을 한국천주교회사에서는 “을사추조 적발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즉 을사년도인 1785년에 추조(형조)에서 천주교 집회를 적발한 사건이라는 역사 용어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면 명례방 공동체의 김범우의 집은 장악원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을지로입구역 ‘장악원’ 표석을 통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김범우의 집에서 이벽이 설법(說法)을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천주교 교리나 혹은 복음 내용을 연구하고 강론하는 말씀의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분을 발랐다고 한 것은 단순히 분장한 것이라기보다는, 혹시 재의 수요일 예식을 모방하여 행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과로 집주인이었던 김범우는 단양(丹陽)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유박해와 관련된 기록을 모아 놓은 「사학징의」에는 이 사건의 결과를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인 김범우가 서학(西學)을 받들어 봉행하므로 붙잡아다가 캐물었더니, 김범우는 ‘생각해 보아도 서학에는 좋은 내용이 많

다. 그릇된 점이 있음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므로 한차례 엄하게 형벌하였다. 최인길이 ‘함께 서학서를 보았으니, 같은 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므로 몽매하다고 책망하면서 곤장을 치고는 김범우와 함께 열흘을 수감하였으며, 다시는 (서학을) 받들어 믿지 말라는 뜻으로 효유하였다. 그리고 최인길은 매질을 더한 뒤 방면하고 김범우는 도배(徒配)하였으며, 가지고 있던 책자는 모두 형조 뜰에서 소각하였다.”

이처럼 김범우는 명례방 공동체의 집주인이며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홀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김범우의 유배는 기록상으로 조선정부가 천주교 사건에 대한 최초의 탄압과 처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김범우는 유배지에서 선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배지에서 선종한 시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록을 모아둔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는 그의 선종한 시점에 대해 불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 여러 차례의 형벌 후에도 토마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자 판서는 그를 단양읍으로 귀양 보냈다. 그는 그곳에 가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종교를 실천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교리를 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벌의 후유증 때문에 쇠약해진 그는 같은 해에, 혹은 몇몇 다른 이들에 의하면 좀 더 뒤에 그곳에서

사망했다. (...단양의 아전들은 그가 2년 뒤에 ... 사망했다고 말한다. ... 그 긴 간격이 그에게 순교자의 칭호를 부여하는 데 장애가 될는지, 그것은 내가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니다.)”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조사자인 다블뤼 주교의 개인적인 논평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순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질료적으로, 또 형상적으로 죽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김범우의 죽음이 천주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배를 당하고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형상적 죽음은 분명히 순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질료적 죽음, 공육신적 죽음입니다. 질료적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해자의 타격에 의해서 죽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유배 후 2년 뒤에 죽었다면, 고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고, 다른 병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블뤼 주교는 조선의 순교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범우의 순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범우 토마스가 천주교를 믿다가 유배지에서 선종하였고, 끝까지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범우의 후손은 그 후 경상도 밀양으로 이주

하였고, 김범우의 묘도 밀양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의 기록들인 가승(家乘)과 고문서에 의하면, 김범우는 단장으로 유배되어 2년 후쯤인 1787년 경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전과 집안의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단양 유배설을 유지하고 사망 후에 이장했을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가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인터넷 자료에서 보면 ‘하느님의 종’ 김범우 토마스를 “조선 최초의 천주교 학생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들에 대한 133위 ‘하느님의 종’은 모두 순교자로서 시복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시복이 이루어진다면 김범우는 명실공히 한국의 최초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국천주교회의 초창기 공동체 집회를 주도하고 자신의 집뿐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천주교를 믿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김범우의 선종 이후에도 신유박해 때 아우인 김이우와 김현우 역시 순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김범우 토마스를 기억하면서, 명례방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신자들을 맞이했던 그분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

산다는 건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이순(60세)의 나이를 앞둔 김 안셀모는 지난주 암 진단 후 한 달 만에 갑자기 사망한 회사 동기의 문상을 다녀온 후 ‘인생무상’과 ‘삶의 회의’에 빠져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공장을 차려 돈도 제법 벌고 이제 여유 있게 품 잡고 살만 했는데...

“이렇게 살다 죽어간다면 짐승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짝 맞추어 자식 낳고, 주식이니 뭐니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 인지...”

답답한 마음에 대부님을 만나 이러한 심경을 털어 놓으니, 허허웃으며 말씀 하신다.

“이제 자네나 나나 환갑이 넘었으니 언제 가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야! 오늘 하루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세. 그리고 오늘 행복하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챙기면서 사랑의 추억을 남기세.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도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것은 사랑의 추억뿐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지...”



대부님과 술자리 후 얼큰해져 집으로 돌아가는 안셀모의 손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튀김 포장이 들려있다.

Question

죽음 앞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얘기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코헬렛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코헬렛이 찾은 일차적인 기쁨은 자신이 수행한 노고의 몫으로 주어지는 즐거움이었다.(2,10) 이것은 인간이 애써 수고한 보답으로 얻어진 내적 기쁨으로서 인간의 위업과 노고 자체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쁨의 보다 근원적인 원천은 하느님께 있음을 코헬렛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느님께서

당신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내리시고 행복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다.(2,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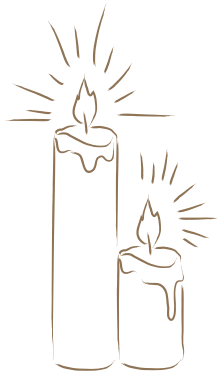
이러한 기쁨의 두 가지 차원, 즉 인간적 차원과 신학적 차원이 함께 언급되면서 이제 인간이 누리는 참된 기쁨은 바로 ‘하느님의 선물’임이 제시되고 있다. : “인간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또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 속에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3,12-14) 이러한 코헬렛의 관점은 다시 한 번 더 5,17-19에서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다.(9,7-10 참조)

코헬렛이 제시하는 기쁨은 쾌락주의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인간이 그의 삶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하느님의 선물’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가르침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 하느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인간 삶 안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을 제 때에 이루시는 하느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월간 빛, 2003년 9월호, 송재준 마르코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성서학 교수)]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Cornerstone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중에서

미사보 (라틴어: Velum, 영어: Veil)

미사를 비롯한 교회 예식에서 여성 신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으로 라틴말로는 ‘벨룸(velum)’이라고 합니다. 이는 초대 교회부터 전해 오는 관습으로 세례성사를 통해 얻게 된 부활의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미사보는 화려하게 치장한 머리를 가려 정숙함과 겸손함을 나타내기도 하며, 결혼식 때 쓰는 면사포(面紗布)도 이런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과 대면할 때는 너울을 벗고 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날 때는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고 합니다(탈출기 34,35).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얼굴이 빛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가기를 두려워 했고, 모세의 얼굴이 하느님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가리는 천은 거룩한 대상이 곁에 있음을 알리며, 천상의 거룩함, 영광이 곁에 있음을 표현하는 경외와 존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바로로 사도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민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1코린토 11,5-6). 바로로 사도의 권면에 따라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풍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머리는 남편을 상징하기에 교회 전례에 참여할 때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한국 천주교에서는 세례성사 때에 ‘흰 옷을 입히는 예식’을 대부분 미사보를 머리에 씌우는 것으로 간소화하게 되면서 미사보를 세례받은 여성 신자의 상징처럼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마치 영세 전의 예비 신자는 미사보를 쓰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래는 영세 여부를 불문하고 성당에서 여자들은 미사보를 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교회법 개정 이후 여성의 미사보 착용의 의무가 사라졌고, 다만 권장사항이 되었습니다.

미사보를 만드는 천의 재질은 대부분 망사 등 속이 반쯤 비쳐보이는 부드럽고 얇은 재질이고, 아름답게 수를 놓는 경우가 많고, 뜨개질로 직접 미사보를 떠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흰색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검은색은 장례식같이 엄숙한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또한, 흰색에는 부활의 뜻을 내포하기에 장례미사에서 흰색 미사보를 사용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전 음악을 듣다

차이콥스키의 유서 교향곡 6번 '비참' - 영혼의 안식을 갈구하며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음악이 연주되면 이미 그 작곡자의 손을 떠나 그를 듣는 개인의 인생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른 상상력 속에 각각의 나름대로의 감명을 준다. 음악이 주는 커다란 매력이다. 19세기 근대화로 요동치는 러시아 제국을 온 몸으로 받아낸 음악가 차이콥스키(1840-1893)는 특히 남다르다. 그의 사망을 두고 음악학자들은 아직도 당시의 상황이나 남아있는 문헌들에 근거하여 여러 가설을 제기하였고, 필자는 줄저 「클래식 법정」에서 여러 학설을 모두 소개한 적이 있다. 여러 학설마다 나름대로의 신빙성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만, 필자는 그 중 '강요된 자살설'에 근거하여 이번 호에서 교향곡 6번 '비참'을 차이콥스키의 '유서(symphony as suicide note)'로 소개하고자 한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3세의 대관식 행진곡을 의뢰받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미국의 카네기홀의 초청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가 왜 자살을 강요받았을까? 먼저 그의 생애를 차분하게 살펴보자. 차이콥스키의 아버지는 러시아의 채광 엔지니어이자 군인이었다. 우랄산맥 철광 속소에서 태어났다. 서구식 근대화를 추구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Petersburg) 천도한 표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는 점차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여전히 하층민의 삶은 비참하였다. 귀족이 아닌 자는 군인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 길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차이콥스키의 부모도 근대식 교육을 받아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당연히 자

Tchaikovsky: Symphonies Nos.4-5-6 »Pathétique«
Leningrad Philharmonic Orchestra, Evgeny Mravinsky

Recorded: 1960-09-15
Recording Venue: Brent Town Hall, Wembley, London
Release Date: 4th May 1987
Catalogue No: E4197452
Label: DG
Length: 2 hours 7 min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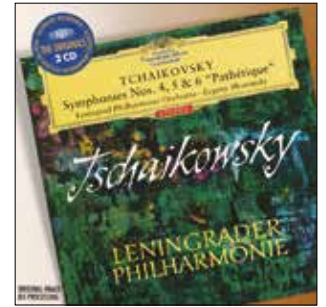
식들에게도 근대교육을 시키려고 걱정하였다. 부모는 1843년 당시 22살의 젊은 프랑스 출신의 파니 듀바흐(Fanny Dürbach)를 집안 가정교사로 채용하였다. 차이콥스키는 무언가 배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파니는 형보다도 둘째인 차이콥스키가 재능이 뛰어난 것을 발견하였다. 차이콥스키는 5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부모는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는 오르간까지 사주면서 지원하였다. 파니는 차이콥스키가 6살 때에 이미 프랑스와 독일어에 능숙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파니를 차이콥스키도 무한한 애착을 갖고 따랐다. 1850년, 차이콥스키 10살이 되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부모는 매우 실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음악도 공부도 잘하는 차이콥스키를 공무원의 길을 가도록 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에서 음악가는 학교의 음악교사가 되거나 제국극장의 단원이 되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사회계층의 사다리 맨 밑바닥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러시아 6인조'가 모두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하였던 차이콥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국법률학교(Imperial School of Jurisprudence)에 입학하였다. 1835년 차르가 설립한 당시 최고의 명문으로 7년 과정의 공무원을 양성하는 특수학교였다. 다만 최소 12살 이상이어야 입학이 허가되므로, 10살의 차이콥스키

는 800마일(약 1,300km)이나 멀리 떨어진 예비기숙학교에 갔어야 했다. 그러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심약했던 어린 차이콥스키에게는 파니와 어머니와의 이별은 큰 충격이었다. 1852년 차이콥스키는 우수한 성적으로 본과에 진학하였지만 불과 2년만인 1854년 어머니가 콜레라로 사망하자 파니에게도 2년간 연락을 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25년이나 지난 후에도, 차이콥스키의 후원자 폰 메크 부인(Nadezhda von Meck)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 아직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그 날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라고 쓰고 있다. 차이콥스키에게 파니와 어머니에 대한 극한의 애착과 이별은 남학생 기숙사에서 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성애로 고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당시 아버지도 어머니와 함께 콜레라에 걸렸었지만 다행히 회복하였다. 아버지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느라 학교를 비운 차이콥스키가 공부에 뒤쳐질까 바로 기숙사로 돌려보낼 정도로 노심초사하였다. 일류학교에서의 극심한 경쟁 때문이었다. 차이콥스키에게 이런 지옥같은 공부에서 벗어날 방도는 뜻맞는 기숙사 동료와 음악회를 가는 것이었다. 친구들의 전언에 의하면, 차이콥스키는 학교 합창시간에 로시니, 벨리니, 모차르트, 베르디의 오페라의 선율을 즉흥적으로 변주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의 피아노를 수리하러 오는 피아노 제작업자에게 몰래 피아노를 계속 배웠다고 한다. 차이콥스키의 이러한 음악에의 열정을 알게된 아버지는 - 당시 러시아에는 공적인 음악원이 없었다 - 한때 마음을 바꾸어, 1855년 음악가 쿤디거(Rudolph Kündinger)에게 개인레슨을 받도록 지원하였지만 쿤디거 자신도 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토로하였다. 결국 아버지는 차이콥스키를 제국법률학교를 계속 다니도록 강요하였고, 1859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법무성 관료로 임용되었다. 1860년 당시 차르 알렉산더 2세와 그 여동생의 지원을 받아 안톤 루빈슈타인(Anton Rubinstein)이 음악교실을 만들어, 1862년에는 러시아 최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으로 개편되었다. 공직에 만족하지 못하던 차이콥스키는

Tchaikovsky: Symphonies Nos. 4, 5 & 6 "Pathétique"
Leningrad Philharmonic Orchestra, Evgeny Mravinsky

Recorded: 1960-09-15
 Release Date: 13th Mar 2006
 Catalogue No: 4775911
 Label: DG
 Series: Originals
 Length: 2 hours 8 minutes



바로 제1기생으로 야간반에 입학하여, 낮에는 법무성 관료로 밤에는 음악원 학생으로 이중생활을 하였다. 이중생활에 지친 차이콥스키는 결국 결단을 내려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음악에만 몰두하였다. 이후에 모스크바에도 새로이 음악원이 설립되면서 그곳에 창립멤버로서 교수로 부임하고 결국은 음악가로 대성하게 되었고, 그 명성은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콥스키의 화려한 외면과 달리 내면으로는 기숙학교에서 시작된 동성애로 인한 고통을 평생 앓았다. 당시 러시아는 근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극도로 보수적인 러시아정교회 국가였다. 동성애는 종교적 금기일 뿐만 아니라 범죄시 되었다. 차이콥스키는 사회적 금기인 동성애를 억누르려고 애썼다. 일례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흠모하는 제자를 피하다가 일면 동성애가 숨겨지지 않을까 가면적인 결혼을 할 정도였다. 금기야는 차르의 시종무관인 공작의 조카와 차이콥스키의 동성애가 고발되었다. 이미 유명인이 된 차이콥스키의 동성애 추문이 밝혀진다면, 러시아의 위신이 추락할 판이었다. 결국 비밀법정이 소집되어 공교롭게 차이콥스키의 제국법률학교 동문 8명이 재판관이 되어 차이콥스키에게 자살형의 선고를 내렸다. 비밀리에 차이콥스키를 자살시키는 것은 그의 명예를 보존해주면서도 러시아 귀족사회의 추문을 잠재울 수 있는 ‘윈-윈-전략’이었다. 1863년 11월 6일 차이콥스키의 공식사인은 당시 유행병이었던 콜레라로 발표되었고, 차르는 차이콥스키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도록 하면서 이례적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다.

자살형을 선고받은 차이콥스키가 시간을 벌어 그의 마지막 유언을 곡에 남겼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은 그가 죽기 아흐레 전에 그의 지휘로 초연된 마지막 작품이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정교회의 레퀴엠 중 '그리하여 그의 영혼은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릴지니(With thy saints, O Christ, give peace to the soul of thy servant)'의 선율을 1악장의 클라이맥스 중 202마디에서 205마디까지로 짧게 살짝 끼어넣었다. 가톨릭의 레퀴엠은 여러 작곡가들이 남긴 다양한 곡들이 있지만, 러시아정교회의 레퀴엠은 단 하나뿐이다. 비록 짧게 들어갔으나 러시아정교회 신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낯익은 선율이었다. 요즘 유튜브에서 쉽게 이 선율을 들을 수 있으니, 이를 듣고 나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을 들어보시라. 과연 차이콥스키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 곡에 정리하였는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을 유언으로 본다면, 그의 유언은 가사 그대로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엄격한 신도의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 주제에 대놓고(러시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친숙한 레퀴엠 선율을 삽입하였으므로!) 영혼의 안식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19세기의 같은 농업 후진국 조선의 1801년 신유박해와 연결시켜 보자. 1779년 조선에서는 지금의 경기도 광주 근교의 천진암에서 좌절한 청년지식인들(주로 남인)이 놀랍게도 '스스로'(전세계 역사에서 유일하다!) 천주교(가톨릭)를 받아들여 신앙인이 되었다. 사실은 정적 남인을 제거하는 정변이었지만, 정치충 사건(1791년 어머니의 장례를 천주교 의식에 따라 치루고 신주를 불태운 사건)을 핑계삼아 1801년 300여명이 넘게 순교하였다. 이때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형제의 엇갈린 운명은 김훈 작가의 '흑산'에 잘 묘사되어, 우리에게 근원적 의문이 꼬리를 물게 한다. 단호하게 순교한 정약중에 비하여 흑독한 고문을 견뎌내며 배교를 약속하고 살아남아 귀양을 간 정약전과 정약용은 구원을 바랄 자격이 없을까? 필자의 개인적 의문은 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으로 연결된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1악장의 클라이맥스에 난데없이 끼어든 러시아정교회의 레퀴엠 선

Tchaikovsky: Symphony No.6 "Pathétique"
 Lisa Batiashvili (violin)
 Rotterdam Philharmonic Orchestra, Yannick Nezet-Seguin
 Recorded: 2012-08-23
 Recording Venue: De Doelen, Rotterdam
 Release Date: 23rd Sep 2013
 Catalogue No: 4790835
 Label: DG
 Length: 64 minutes



율로 차이콥스키의 유서가 되었지만, 필자에게는 교향곡 6번 전부가 종교 음악이다. 교향곡 6번 1악장의 맨 처음에 나오는 파곳(바순)의 낮은 저음 4음표가 연약한 인간의 고통스런 흐느낌으로 다가오고, 4악장의 맨 마지막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서서히 사그라지는 예외적인 종지법도 깊은 종교적 영감을 준다. 연약한 인간에게 생노병사는 숙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의 귀결은 자비로운 하느님이 베푸시는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을!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성지 이스라엘의 십자군. 그 마지막 도시 - 아코

심연선 소화테레사.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하이파의 스텔라 마리스 수도원 근처에 있는 등대 부근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천연의 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아름다운 곡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면 가장 위쪽 끝부분에 작은 도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운전해서 이동하면, 몇 분 뒤에 오른쪽으로 **바하이 정원**이 보입니다. 붉은색 돔이 있는 건물은 바하이교의 예언자 ‘바하울라’의 묘입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처음 들은 종교인 바하이교는 무려 10개의 나라에 사원을 짓고 세계선교에 성공(?)을 하였답니다. 한국에도 후암동에 본부가 있다고 하네요. 이슬람 시아파와 비슷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인접한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항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컨테이너들, 배에서 물건을 내리는 기계들, 정신없이 오가는 새들... 그런 모

습들 중에 특별히 매우 크고 웅장 특별해 보이는 별꼴색 사각 건물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마치 신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건물은 곡식창고입니다. 탑처럼 보이는 곳에 히브리어 ‘다곤’ 글자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 곡식창고 이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네 맞습니다. 판관기의 유명한 인물 삼손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 다곤 신전입니다(판관 16,23).

이 다곤 신은 곡물의 신으로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북서부 지역에서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의 주신이었다고 합니다. 거룩하기에 이를 데 없는 성지에 웬 위상 신의 이름이라니요? 아이러니합니다만, 타종교에 관대한 하이파 도시에 걸맞는 건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하이교 성지 주변에 위치해있으니 세계종교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가나안 시대 때의 농경업과 관련된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자동차로 이동하면, 아까 내려다보았던 작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아코**(히브리어로 Akko 영어로 Acre 아랍어로 Akka)입니다. 한국인 순례자들은 이스라엘에 여러 번 왔어도 이곳을 와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른 ‘관광객’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아마르나 문서에도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맛있는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선 중에 거의 유일하게 만이 형성되어 있어 항구로 이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임과 더불어 에스드렐론 평야 지역으로 내려가는, 갈릴래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인 도시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티로와 시돈을 만나게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 북부에 위치한 아코는 고대로부터 주요한 항구도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아세르 지파 땅에 속해 있지만 토착민들이 그대





바하이 가든



아코 생선시장



아코 항구

로 살았던 다른 민족의 도시였습니다. 이는 왕조시대 때까지 이어지다가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점령되고 나서 지명이 프롤레마이스로 바뀌게 되고 이 지명은 사도행전에서 바로 사도의 3차 선교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머무는 도시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사도 21,7).

로마-비잔틴 시대 이후 이슬람에게 점령되었다가 십자군 시대 때 보두앵 1세(볼드윈 1세)가 1104년에 차지하였고, 향후 200여년간 십자군들이 세운 예루살렘 왕국의 관문으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말피, 피사와 같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성지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했던

이 도시는 1187년 히틴의 뿔 전투에 크게 진 십자군들이 모여들어 성지에서의 마지막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코는 이스라엘에서 십자군의 자취를 잘 느껴 볼 수 있는 관광 도시로 유명합니다.

아코 구도시는 바닷가를 만나는 도시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도보로 다녀야 합니다. 주차는 바닷가 쪽보다 구도시가 시작하는 곳에 세워 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십자군의 요새 같은 도시의 모습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

고 관광지로 잘 만들어져 있어 지도를 보며 스스로 찾아다니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성지를 되찾은 유럽의 왕들과 기사들을 따라 많은 순례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은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게는 8차까지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군들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갔기에 팔레스타인 땅에 머무르며 성지를 지켜야 할 기사단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 본부를 둔 성전기사단(knights templar)이 가장 유명하지요. 십자군 전쟁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흰 바탕 가운데 붉은색 십자가가 크게 그려진 가운을 입은 철갑으로 무장한 용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 혹은 풍토병으로 고통받는 질환자들을 치료하던 군인들로 이루어진 구호기사단(Knights Hospitaller)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도시 아코에서 제일 먼저 시야를 사로잡는 시타델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the knights halls”은 구호기사단이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내부로 들어가 보면 낮은 조명이 공간을 밝히고 있는데 웅장하게 세워진 큰 기둥과 아치형 천



아코의 아랍청년들



knights Halls



알자자르모스크



터키식 목욕탕

장이 압도적입니다. 어디선가 기사들이 나올 것만 같은 느낌마저 줍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호기사단은 성지에서 십자군들이 물러나고 난 후에도 키프로스, 로도스, 몰타 등지에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현재 ‘몰타 기사단’이라는 NGO로 재탄생하여 구호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꼭짓점 여덟 개가 있는 몰타 십자가는 어디서든 한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1291년에 맘룩왕조에 의해 십자군의 도시는 파괴되었다가, 오스만 터키시대 때 재건되었는데 십자군이 사용했던 것들을 많이 참고하여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성당, 병원, 성채 등을 여관, 목욕탕, 모스크 등으로 개조

하여 사용하였고 도시는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것이 터키식 목욕탕인데요 ‘하맘 알바샤’라고 불리는 이 목욕탕은 1950년까지 계속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시타텔 맞은편에 있는 알 자자르 모스크는 무함마드의 수염이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좁은 골목골목을 메운 시장의 모습은 여느 지중해변 아랍마을과 다르지 않은데요,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의해 도시가 점령당했지만 오스만 제국 멸망 이후에도 주민들은 아코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코 인구의 약 30%는 아랍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도시는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아랍인입니다.

오래된 마을에 가면 맛집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 마을에 가면 숨겨진 좋은 지역 요리사의 향토 음식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지중해 동부 연안의 지역에서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 레바논이고, 이 도시는 레바논에 근접해 있어서 그런지 맛 좋은 아랍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향구이기 때문에 신선한 생선요리를 드실 수 있고, 이스라엘 내 다른 아랍 지역과는 다른 풍성한 아랍 음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도시가 끝나는 부분에 있는 성전기사단이 만들어놓은 터널을 따라 걸어 나가면 푸르른

바닷가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햇볕에 반짝이는 파도와 함께 검게 그을린 피부의 아랍 소년들이 성벽 끝에서 바닷속으로 썰 새 없이 다이빙을 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찝찝한 마음을 머금은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묘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곳을 떠나야만 했던 십자군의 아쉬움일까요? 그렇게 아코 도시는 활기 넘치는 분위기 가운데에도 성지를 뒤로했던 기사들의 애잔한 마음이 남겨져 있는 모습으로 오늘도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다시 만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최대환 신부·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1 그동안 신앙인의 눈으로 고전문학을 읽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차례로서 봄과 여름에 걸쳐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어보려 합니다. 제법 긴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이 고전은 그러한 수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작품에 도전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생의 책’으로 남아있는 이 위대한 소설을 드디어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이 작품을 다시 만나면서, 고전이란 거듭 읽을 때 그 빛이 더 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몇 년에 걸쳐 이 작품에 대한 여러 훌륭한 우리말 번역들이 축적되어서 조금 더 깊이 이 작품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으로 이 작품을 읽는 작업을 시작하며 이미 나온 뛰어난 번역들이 있지만, 최근에 나온 번역에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카라마조프 형제들』 I-III, 홍대화 옮김, 창비, 2021)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다시 만

나는 이 작품 앞에서 갖는 기대와 설렘이 매우 큼니다.

#2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1821-81)가 세계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압도적입니다. 『백치』, 『미성년』, 『악령』,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다섯 편의 장대한 장편을 정점으로 하는 그의 작품 전체는 세계 문학사의 위대한 정점을 이룹니다. 때때로 그는 톨스토이와 함께 ‘소설 문학 자체’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평가가 과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의 문학은 일찍이 러시아라는 언어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인정받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20세기 이후 문학에 있어서 작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문학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철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정

신과학과 인문학 분야 전반에 걸쳐 현대의 사상과 사고에 있어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영감을 주었고 주목할 만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서구 문학과 사상을 깊이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작품 세계의 중심에는 유럽과 영미와는 다른 러시아 고유의 심성과 사유, 그리고 러시아적 전통이 자리잡고 있어서 유럽 고전이 보여주지 못한 관점과 통찰,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문학에 있어 주목할 만한 지평의 확장이 됩니다. 동시에 그의 위대한 소설들은 매우 예리한 심리분석과 심오한 사변을 과감히 도입하면서 복잡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던 당대의 시대적 위기와 시대 정신을 압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예언자적 풍모를 부여합니다. 그의 작품을 주의 깊게 읽다보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어떤 전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지, 혁명의 역사적 귀결과 결과에 있어 당시 러시아 젊은이들의 허무주의와 열광주의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그의 작품들은 러시아 혁명 전야만이 아니라 근대 이후 각 시대에 있어, 정신적 위기를 감지하며 이에 대한 출구와 치료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지할 만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



카라마조프 형제들 1
원제 Brothers Karamazov /
Dostoyevsky, Fyodor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 홍대화 옮김
창비 | 2021년 06
월 15일 출간 | ISBN
9788936464844(8936464841)
144 * 210 * 33 mm / 677g | 524쪽
창비세계문학 85



점기의 암흑기, 처참한 전쟁 후의 폐허, 산업화 이후의 물질주의적 풍조라는 시대적 도전에 처할 때마다 많은 독자들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매료되고 영향을 받으며 더 깊고 철저하게 시대를 바라보며 변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그의 작품에서 얻은 영감들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 역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만 존재의의를 지니는 ‘문학적 경전’으로서 만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고전’으로서 그의 작품들은 이 시대의 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 신앙인에게 가진 의미는 각별합니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정립된 이후 도스토예프스키 보다 더 큰 영향을 신학에 준 작가는 없었고, 특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보다 더 신학에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주로 정교회의 신학적, 전례적 전통과 러시아 민중의 독특한 신심과 심성에 기초하여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과 관점의 한계 안에서 서구 유럽, 특히 가톨릭 신학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의 작품 안에서 사랑과 구원이라는 종교적 주제가 그 핵심이고, 매우 절박하고 심오하게 인간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정교라는 종교적 전통을 넘어 모든 신학적 전통에 있어 그의 문학세계가 신학적 사유를 위해 매우 큰 가치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가 그려내고 있는 ‘그리스도상’이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고 내면적 회심의 계기로 작용합니다. 여러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세계와 그가 창조한 문학적 인물들을 신학적 숙고의 원천으로 삼았으며, 여기서 그리스도교 인간학과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요소들을 길어내고 있습니다. 로마노 가르디니,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한스 쿵 같은 20세기의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4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는 독자들은 그 구조적 장대함과 종교적 숭고함, 사변의 심오함과 인간 심리와 욕망에 대한 심층적 분석 때문에 감탄과 경외심과 함께 난해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작을 읽으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근본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작가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 복음 자체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변과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와 실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독자의 지성과 감수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인류와 한 세대, 각 개인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순수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 안에서 완성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사랑이 그토록 참담하고 어두운 죄와 욕망과 허무의 세력 안에서 신음하는 인간 안에서 자라나는 광경을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그려왔습니다. 그 정점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 해에 평생의 주제를 집약하여 완성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무엇보다 그가 가장 심혈을 다해 창조한 인물이자 가장 사랑한 인물인 알료사, 곧 알렉세이 카라마조프라는 인물의 존재와 행위와 말을 통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5 이 작품의 지향하는 것이 단지 예리한 사변이나 매혹적인 수사학이 아니라, 삶이자 실천이라는 것을 소설에서 주인공 알료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장상인 조시마 사제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 이미 작품의 전반부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묻고자 자



The Brothers Karamazov (1958)
Approved, 2h 25m
Director: Richard Brooks
Writers: Julius J. Epstein(adaptation)
Philip G. Epstein(adaptation)
Fyodor Dostoevsky(novel)
Stars: Yul Brynner, Maria Schell,
Claire Bloom



신의 수도원을 찾은 한 귀부인에게 조시마 장상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실천적인 사랑의 경험으로요. 이웃을 실천적으로,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랑에 성공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존재와 부인 영혼의 불멸을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만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 완전한 자기희생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그때는 의심 없이 믿게 되실 것이고, 조금의 의심도 부인의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 비록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언제나 부인이 선한 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거짓을 피하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거짓, 특히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거짓을요. 자신의 거짓을 잘 관찰하고 매시간, 매순간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타인과 자신 모두를 혐오하는 결벽증 또한 피하십시오. 자기 내부의 추하게 여겨지는 면은 그것을 자기 속에서 알아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화가 됩니다. 두려움 역시 피하십시오. 두려움은 모든 종류의 거짓의 결과일 따름이지만 그 두려움 역시 피하십시오. 사랑을 얻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소심함을 절대로 두려워 마시고, 이때 있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에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상상의 사람에 비해 실제적 사

랑은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인께 더 위안이 될 말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상상 속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쳐다봐주기를 바라고 신속하게 만족을 줄 영웅적인 행동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실제로 생명을 내놓을 정도까지 이르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기만을, 마치 무대에서처럼 모두가 보고 칭송하고 얼른 끝나버리기만을 바랄 테지요. 실제적인 사랑은 노동과 극기이며, 어떤 이에게 그것은 완전한 학문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하건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인께서 목표에 다가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목표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끔찍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부인은 갑자기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부인 위에서 부인을 내내 사랑하시고 신비롭게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기적 같은 힘을 분명 보시게 될 겁니다.”

한편 실천적 사랑을 통한 삶의 변화는 인생을 하느님의 눈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시마 장상이 사랑하는 제자 알료사에게, 자신이 죽은 후 수도원에 머무는 대신 세상으로 나가라고 권고하며 축복하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는 아직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평강 중에 위대한 순종의 길에 나서기를 축복하며. 너는 아직 세상을 많이 다녀야 한다. 결혼도 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을 지켜드려라. 주께서도 너를 지키실 거다. 이게 네게 주는 유혼이다. 슬픔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일해라, 지칠 줄 모르고 일해라. 아직은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지만 내가 살날이, 아니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라.

(...)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하느님께 달려 있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기억해라, 알렉세이. 나는 살면서 네 얼굴을 보며 너를 마음 속으로 여러 번 축복했다.” 장상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 담 너머로 나가더라도 세상에서 수도사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삶이 네게 많은 불행을 가져다주겠지만, 그로 인해 너는 행복해질 것이고 삶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축복하도록 만들겠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야.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라.”

이제 다음 달부터는 소설의 전반적 구성과 함께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한 두 장면을 자세히 살펴 보려합니다. 알료사가 형 이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 유명한 ‘대심문관’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과 조시마 장상이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의 생애에 대해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작가가 이 장대한 작품에서 하려는 이야기의 참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이 접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판옵티콘 시대에 즈음하여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장면 1. 2008년 여름의 어느 날. 급하게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환자복이 돈을 내고 구입한 죄수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뜻하지 않게 외부와 차단된 채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초록색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을 느끼고 있자니, 고요한 병실 안쪽과 대비되어 너무도 우울해졌다. 떨어질 줄 몰랐던 혈압은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이 되었다.

장면 2. 같은 층 내과 환자의 보호자가 연달아 코로나로 확진되어 시작한 연쇄감염으로 신경외과 병동이 폐쇄, 코호트 격리가 되어, 1년차는 병동에서 먹고 자야하는 죄수가 되어 버렸다.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채 보호자와 간병인이 모두 확진자가 되어 홀로 남겨진 70대 후반의 할머니는 눈물이 그렇그렇 맺힌 눈으로 주치의를 응시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병원은 핵폭탄이 터진 후 방사능 낙진이 떠도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의 디스토피아를 방불케 한다. 눈만 보인 채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고는 어깨도 부딪치지 않으려 한 것 움츠린 채 종종걸음을 한다. 코로나를 피해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따로 없다.

일요일 아침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고 집근처 카페에서 진한 향이 나는 커피를 시켜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 생각없이 멍하니 바라보던 때가 있었다. 금요일 저녁 불판 위에 고기를 얹어 놓고 소맥을 곁들이며 동료들과 뒷담화(그래서 누가 내 뒷담화를 못하도록 회식은 꼭 참석해야 한다)를 곁들이면서 깔깔대고는 2차로 노래방에서 목청을 한껏 돋우던 시절이 있었다. 어쨌건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건사하는 아무것도 아니던 소소한 일상이 그토록 고맙고 그리울 수가 없다. 2년 전부터는 그 때와 차원이 다른 범지구적인 빅 브라더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 현재는 개인별로 마스크, 손세정제, 자가 격리를 하는 개인의 자기 지배체제인 솔로크라시(solocracy)와 도처에서 동선을 추적하

는 CCTV처럼 보이지 않는 감시체계(지금은 드러내 놓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인 판옵티콘(panopticon)이 묘한 동거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판옵티콘은 공리주의자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로써 중앙에 어두운 감시탑을 위치시켜 이를 둘러싼 외곽은 불을 밝혀 그 안의 수감자들은 감시자를 볼 수 없게 만든 구조이다. 이런 식이면 죄수들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속칭 노예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익명화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중앙에서 사람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미셀 푸코가 말한 것처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무차별적 사용은 마치 죄수를 감시하는 것처럼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가 되어버린다. 팬데믹 초기에 개인의 동선을 낱알이 까발리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과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며, 계속 앞으로의 2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짖는 생경한 전체주의 앞에서 힘없는 개인은 그저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자연을 언급할 때, 우리는 보통 둘 중에 하나의 의미에서 경외롭다고 한다. 먼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연재해인 쓰나미나 폭풍, 지진, 해일 등을 떠올릴 수 있고, 다음은 세포 내지 미생물 수준의 미세현미경에서 보이는 마이크로 코스모스적인 입자 수준의 보



컨테이션
Contagion, 2011
미스터리, 스릴러 | 미국 | 103분



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이다.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에 지고 말았다. 인간은 결코 이들의 반복된 진화에 맞설 수 없으며, 역사상 인간이 승리한 적은 손꼽을 정도이다. 최근의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력은 높지만 위중도와 치명도는 그렇지 않다는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곧 이 질병이 독감같은 유행병이 될 수 있어 정기적인 백신 접종으로도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지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뿐이다. 보건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지만, 부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서 케이블 TV에서는 <컨테이션, 2011>이 방송되기 시작하였다. 감염의 원인, 상황전개와 국면전환, 음모론, 가짜뉴스 등은 마치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현실과 매우 닮아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영화처럼 통제불능의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된 아나키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감염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누비고 공공장소의 문손잡이를 만지는 장면, 일반 감기로 오인하여 마스크를 끼지 않아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모습, “사람은 하루 최대 3000번 얼굴을 만져요, 매분 3-5회”라

고 말하며 방역일선에서 일하다 감염되어 결국 생을 마치는 감염전문가. 강한 전파력으로 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 국가를 믿지 말라고 주장하며 개나리약으로 사기를 치는 유투버(불량 마스크를 팔았던 일부 업자들과 유사함), CDC 파견의사를 볼모로 삼아 가족이 맞을 백신을 요구하는 지역 직원들의 비정한 모습까지. 영화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밑바닥 인간군상의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다.

실체를 알 수 없고 피해갈 재간이 없는 무자비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천형은 수많은 좀비물을 양산하여 인간성 말살(변해버린 그는 내가 알고 있던 이전의 친절함 그거 더 이상 아니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없애버려야 한다는 당위성)의 당위성을 만들어낸다. 며칠 전 외래에서 보았던 공격적인 치매환자와 좀비가 오버랩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눈먼 자들의 도시, 2008>에서 원인 모를 백색실명으로 격리수용된 보이지 않는 자들 틈바구니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척하는 안과 의사 부인은 말한다. “모두가 눈이 멀게 된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끔찍한 재

앙과 위기 상황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사라져 동물적 본성을 혼자만이 직시하게 된 당혹감과 개탄스러움의 절망적인 표현이다. 미심쩍은 타인의 존재에 대한 까닭모를 공포심은 어느덧 코로나 2년차에 당도한 현시점에서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 이타심,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거기에 아울러 자아도취에 빠진 ‘호모 나르키소스’에 의해 말기 암환자처럼 변해 버린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존재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벌써 1년 전의 일이다. 병동에 퍼진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 온 병원에 비상이 걸려 보호자 방문시간을 아예 없애버린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겁에 질린 환자들, 빗발치는 외래의 문의 전화, 4시 이후에는 인적이 끊겨 버린 병원은 유령의 도시이자 또 공포영화가 아닌 실제 모습이라는 점이 더 무섭지만, 이 영화가 언제 끝나서 극장의 조명이 켜질지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 공포영화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본다. 🍿



눈먼 자들의 도시
Blindness, 2008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 미국,
캐나다, 일본 | 120분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윤인복 소화테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성 요셉(Josephus, 1세기경)은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을 때, 잠깐 언급된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양아버지로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자렛에서 살던 목수였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으나, 그녀와 함께 살기 전에 마리아의 임신을 전해 듣고 파혼할 생각을 하였으나,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마태 1,24) 요셉은 하느님께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구원계획에 가장 훌륭한 협력자였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마리아에 대한 신뢰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였다.

요셉 성인에 관한 성서적 근거는 많지 않지만, 화가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식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집트로의 피난, 성전 봉헌,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작품을 남겼다.

요셉의 나뭇가지

복음서에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단지 그들이 약혼하였는데, 함께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초기 르네상스 화가인 **피에트로 페루지노(Pietro Perigino, 1450년경~1523년)**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황금전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장면을 묘사했다. 마리아의 신랑



페루지노, <마리아의 결혼>, 1499-1504, 패널에 유채, 프랑스 칸 미술관

은 대제사장 앞에서 시험을 거친 후 요셉으로 선택되었다. “다윗의 가문에 혼기는 찾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제단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올 것이다. 가지들 중 한 가지에 꽃이 필 것인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가지 끝에 앉을 것이다. 이사야 예언서에 따라 이 가지의 주인이 의심할 여지없이 동정녀의 배필이다.”(황금전설) 요셉은 다른 젊은 구혼자들과 함께 성전 제단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았고, 바로 요셉의 나뭇가지에서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었다. 그림 중앙에 마리아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는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이가 많이 들고 그다지 볼품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구

약에서 나뭇가지에 잎이 생겨난 기적이 요셉에게도 일어나 그의 나뭇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핀 것이다.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죄의 용서, 구원의 은유적 표현으로 하느님께서 요셉을 선택한 상징이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자리하고 있다. 대제사장은 구약에 서처럼 화려한 의상에 고급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다. 당시의 전통에 따라 대제사장은 요셉이 마리아에게 완전한 하느님을 상징하는 반지를 건네주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다. 마리아는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배가 불러 있으며,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요셉의 나뭇가지에서 핀 꽃은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 것을 상징한다.

의로운 사람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신부로 맞아들일 생각을 굳히게 된다. 마리아는 달이 차서 예수님을 낳았다. 팔을 쭉 뻗은 아기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마리아와 요셉은 무릎을 꿇고 있다. 마리아는 눈과 입술을 통해 손을 치켜들고 작은 발을 사랑스럽게 구르는 아기 예수를 바라본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아기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기고 싶은 듯하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다정다감한 교감이 느껴진다. 가슴을 숙인 채 마리아의 엇잡은 팔에는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드러난다. 아기를 향한 마리아의 자애와 시선은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비를 드러낸다.

그림에서 요셉은 웃음을 띤 얼굴로 아기 곁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콘이나 중세 전통 도상에서 요셉은 보통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있는 중심부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수심에 찬 표정으로 한 손으로 머리를 괴고 앉아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장차 아내와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로렌조 로토(Lorenzo Lotto,



로렌조 로토, <탄생>, 1523년,
미국 워싱턴 국립미술관

1480경-1556)는 요셉을 아기 예수의 탄생에 기쁨과 감동, 그리고 찬미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셉의 침묵과 합장한 두 손은 자신이 마리아의 동정성의 증인이자 하느님과 함께 예수의 아버지임을 드러내는 듯하다.

짚이 깔린 바구니에는 나신으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놓여 있다. 바닥, 땅! 이는 이 세상에 바로 오심을 뜻한다. 땅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궁, 곧 어머니를 상징한다. 육화돼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은 초라한 바구니 요람에서 드러난다(루카 2,11-12 참조). 전통적 비잔틴 도상에서 요람은 부활사건처럼 열린 무덤을 상기시키

는 방식으로 사각형에 단단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로토는 바구니 아래에 입구를 동여맨 작은 주머니와 작은 통을 그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한다. 빵과 물! 여행을 시작한 누군가가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는 곧바로 전개될 성가정의 이집트 피난을 예고한다.

악보를 들고 있는 노년의 요셉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바로크 화가 **카라바조(Caravaggio, 1571-1610)**는 음악에 열정을 가진 피에트로 알도브란디니 추기경을 위해 이집트로 피난가는 도중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성가정을 그렸다. <이집트로 피난 중의 휴식>을 주제로 한 내용은 4복음서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오 복음서를 원전으로 하는 <이집트로의 피난>을 주제로 한 작품을 보면서 이곳에서 파생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는 막 영아학살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나귀 하나에 몸을 싣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긴 여정을 상상해본다면 이들 성가정에는 잠시의 휴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마리아와 아기가 단풍잎으로 붉게 물든 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


천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왼쪽에 허름한 여행 가방에 얹은 맨발의 늙은 요셉이 악보를 들고 천사를 강렬하게 바라보고 있다. 플랑드르 출신의 음악가 노엘 볼드윈이 지은 저녁 미사 전에 성모님께 드리는 송가이다. “정녕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려, 오, 사랑, 환희의 여인이여!” (아가 7,7) 마리아를 위해 노래하는 [아가]의 음악이 재현되고 있다.

천사 왼쪽은 인류 세계와 늙은 사람(요셉), 즉 인간의 죽음의 세계와 돌로 가득한 지상의 세계를 나타낸다. 오른쪽은 마리아(교회의 은유)와 아기 예수로 천상의 세계, 모든 경계선이 없는 깊은 곳을 향해 열린 세계로, 모든 것에서 부드러운 신성함이 느껴진다. 저녁 무렵,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잠을 청하고 있는 듯하나 요셉은 깨어 있다. 천사의 음악이 그를 깨운 것이다. 요셉



카라바조, <이집트로 피난 중의 휴식>, 1596-97년, 이탈리아 도리아 팜필리 미술관

은 바이올린 소리에 도취할 수 없었다. 물론 천상의 동반자가 함께 있어 기뻐할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잠을 청할 수 없는 상태다. 무죄한 사람이 도망쳐야 하고, 한 어머니가 쫓기며 집 밖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이 요셉에게는 회의적이고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천사의 음악이 요셉을 깨운다. 예언자 즈카리아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라고 말한 것처럼 하느님은 천사를 통해 인간과 대화하는 것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는 성스러운 음악을 통해 구원의 위로와 약속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1사무 15,22) 



목요신학강좌 트랙 track I

2022년
3월17일 ~ 4월28일
(6주, 성주간은 휴강)

목요일 저녁 7:30-9:30

한국CLC 강의실
(영등포구청역, 당산역 이용)

세상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2023년 가을
그리스도인
성장의 길

2023년 봄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다

2022년 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2022년 가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수강료
오프라인/온라인 8만원
청년할인 50% (40세 미만)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1강 (3/17)

송용민 신부 (인천교구)



하느님 나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2강 (3/24)

주원준 박사 (한림성서연구원)



하느님의 다스림을
성찰하는 체험 이야기

3강 (3/31)

김학철 교수 (연세대)



예수님께 하느님
나라를 묻다

4강 (4/7)

한민택 신부 (수원교구)



'이미'와 '아직' 사이

5강 (4/21)

박동호 신부 (서울대교구)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

6강 (4/28)

현재우 박사 (한국C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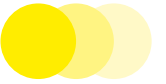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

한국 CLC
Christian Life
Community in Kore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6길 9-3, 5층
Tel 02) 333-9898 Fax 02) 704-2097 Email kclc@kclc.or.kr Homepage www.kclc.or.kr
www.facebook.com/kclchope 카카오톡채널 @한국CLC Instagram @christianlifecommunity_korea

용실상추 (Lettu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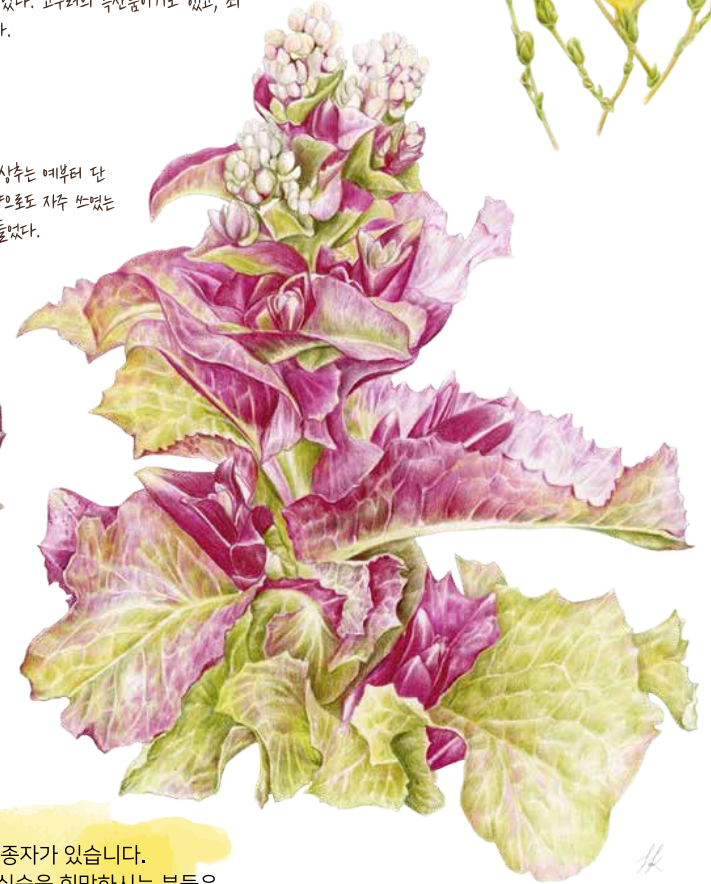
토종 상추는 수확 방식에 따라 치마상추, 오그라기상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뉜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토종상추로 오그라기 계통의 쪽상추, 은평오그라기, 안동상추가 있고 치마상추 계통의 서울 상계동상추, 서울 개봉동상추, 충남상추, 함안상추, 적치마상추 등 10여종. 용의 혀바닥(용설), 개새바닥상추, 조갈상추 등 입과 관련한 이름의 토종상추가 많다.

기원

상추는 고대에 전래되어 한국 특산처럼 되었다. 특히 상추쌈은 다른 나라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생채소를 써서 먹는 방식인데,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의 특산물이기도 했고, 최전방 병사들의 군량으로도 지급되었다.

영양및식용취

각종 비타민과 칼슘, 철 등이 풍부한 상추는 예부터 단순한 먹거리외일 뿐만 아니라 민간약으로도 자주 쓰였는데 황달, 빈혈, 신경과민 등에 잘 들었다.



천주교 농부학교 모집

동문회에 100여종의 토종종자가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에 따른 교육·실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주세요. ☎02-727-2277



www.wrn.or.kr



www.wrn.kr



facebook.com/wrn.kr



seoulwurinong



Crown of Thorns

a painful burden, as of suffering, guilt, anxiety, etc.: from the wreath of thorns placed on Jesus' head to mock Him before He was crucified. Matthew 27,29; Mark 15,17; John 19:2.5.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